

Check Point

- 고객 Lock-in 구축 vs. 수익성 개선
- 쿠팡, 3 년만에 멤버십 회비 인상
- 상장 예정 업체들 또한 경쟁 가속화 요인

이커머스 두마리 토끼의 딜레마

Analyst 오린아 _ 02 3779 0053 _ lina.oh@ebestsec.co.kr

두마리 토끼 잡기 딜레마: 고객 Lock-in 구축 vs. 수익성 개선

- 쿠팡, 지난 주 동사의 와우멤버십을 기존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힘. 금번 인상은 신규 회원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기존 회원은 관련한 추후 안내가 있을 것으로 전망. 멤버십 인상은 2019년 런칭 이후 3년만의 인상
- 이번 인상은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며, 쿠팡은 2021년 3분기에도 3,700억원 수준의 영업적자를 기록. 2021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약 1조 3,000억원 수준임.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와우 멤버십 회원들의 주문 비중이 늘어날수록 단기 비용 부담이 있다고 밝혔으며, 향후 주문당 비용을 개선시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덧붙인 바 있음
- 쿠팡은 비슷한 레벨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여타 이커머스 업체들의 멤버십 회비 대비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었음. 쿠팡의 이번 인상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의 회비 레벨이 비슷해짐에 따라, 고객 Lock-in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올해는 쓱닷컴,마켓컬리,오아시스마켓 등 주요 온라인 그로서리 업체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GMV 확보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판단

이커머스 업체들의 상장 또한 경쟁 가속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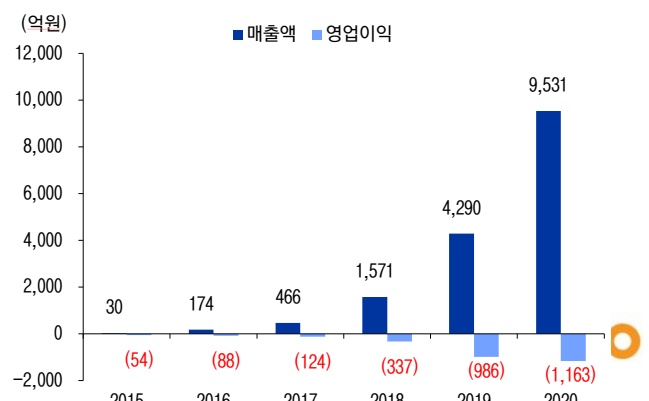
- 마켓컬리는 올해 상반기 중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 다각화 적극적으로 진행 중. 컬리의 2021년 연간 GMV는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빠른 성장과 고객 확대로 주문 처리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 또한 주문 증가에 따라 2021년 2월 오픈한 김포 물류센터 이후 추가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 컬리는 지난 해 9월 인수한 PG업체 페이봇의 사명을 컬리페이로 바꾸고, 자본금 또한 확대.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신규 사업 확장 발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고, 마켓컬리 내 상품 카테고리 또한 숙박상품, 소형 가전, 뷰티, 건식 등으로 확장 중. 기존 그로서리 전문 플랫폼에서 레벨업 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롱테일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은 이어질 전망

주요 이커머스 업체별 멤버십 서비스

업체	월회비	내용
쿠팡 와우멤버십	4,990원	로켓배송 무료배송/반품,로켓프레시 및 로켓직구 무료 배송, 쿠팡플레이
11번가 우주패스	4,900원부터	아마존 상품 무제한 무료배송, SK Pay 포인트 지급, WAVVE 이용
롯데오너스	월 2,900원 or 연회비 2만원	월 14회 무료배송, 1% 추가할인 및 0.5% 추가적립
이베이코리아 스마일클럽	연회비 32만원	매월 쿠폰 지급, 스마일캐시 지급, 추가 적립 등
네이버플러스	4,900원	네이버 쇼핑 최대 5% 적립, 기타 디털 콘텐츠

자료: 각 사,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마켓컬리 실적 추이



자료: 컬리,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리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3.1%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6.9%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1. 1. 1 ~ 2021.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